

##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기초조사

장종식\*, 김태환\*, 김지현\*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주거환경 인식도 및 중요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주거환경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5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일반인 165명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 사후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주거환경개선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44.8%가 집안 구조변경, 26.7%가 치료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건축사가 할 것 같다는 응답이 28.5%인 것에 반하여 작업치료사가 할 것 같다는 응답은 9.1%로 보여 졌다.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별,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p>.05$ ). 주거환경개선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 같다는 응답은 45.9%인 것에 반해 독립성이 증가될 것 같다는 응답은 7.6%로 보여 졌고, 주거환경개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81.1%)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주거환경개선의 인식은 부족하였으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추후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서 경제적 지원 및 작업치료사의 진출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인식도, 작업치료, 주거환경, 중요도

### 1. 서론

2014년 12월 현재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인 250만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그 가운데 선천적인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10%인 것에 반하여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장애인은 90% 정도로 매우 높게 보여 진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장애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써 그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며 장애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주거환경 지원요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주거는 물리적 환경으로 보통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독립적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요인이 된다(Kwon, 1995). 장애인들에게 주거 환경이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장애인들의 주거환경개선 욕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침실의 옷장이나 옷걸이 그리고 부엌의 싱크대에서 어려움을 매우 느끼고 있고, 현관이나 거실에서 생활에 비교적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를 고려한 침실이나 부엌 위주의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된다(Paik, & Lee, 2012).

국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 장애인 주거 개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Park, 2006), 차상위 계층이나 1급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300~5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개조가 이루어지지만 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 유형이나 생활방식, 주거 개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근거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12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에서 개인의 주거공간에 대하여 확대 운영되었지만 설치보다는 공급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애인의 소득은 일반인 평균 48.5%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개별가구가 다 책임지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Kim, 2014).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본 결과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서 최저주거기준에 부족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제적 부담역시 13%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Lee, 2010). 최근 장애의 패러다임을 보면 장애는 개인의 기능적,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장애물과 사회적 억압의 제거에 실패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고된다(Oliver, 1996). 또한 장애인들과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장애인은 비 장애인과 함께 직업과 가정, 여가생활을 동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장애복지의 주요 이념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다(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5).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 및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 기능적 편리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Wilkoff, & Abed, 1994). 또한 작업치료사들의 유니버설 디자인학습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를 키우고, 또한 클라이언트를 환경내에서 다양한 지식, 활동분석, 적응 훈련을 통해 최적의 기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AOTA, 2015).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작업치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 인식도 및 중요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주거환경개선 기초자료를 통해 장애인들의 지원책 마련과 일반인에게도 주거환경분야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주제탐구’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이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인식도와 중요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관해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4월~2015년 5월까지 작업치료와 연관된 치료사나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잠실 종합운동장, 한강, 올림픽공원, 놀이동산 등에서 하루 5시간씩 실시하여 총 165부의 설문지를 회수했다. 본 설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인식도와 중요도를 알아보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파악하기 부합하도록 문항을 형성 후 기존 설문지를 검토 하였다. 기존 설문지와 부합하지 않아 새로이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후 3명에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인터뷰 후 문항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단계는 담당교수의 지도 하에 작성하였고,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관하여 3문항, 주거 환경의 인식에 관한 8문항, 필요성과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과 현재 거주하는 집의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서 ‘매우불편’, ‘불편’, ‘보통이다’, ‘편하다’, ‘매우 편하다’ 등으로 Likert-type 척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연구진행은 Lee(2015)의 ‘조사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5

	Categories	N(%)
Gender	Male	61(37.0%)
	Female	104(63.0%)
Age (years)	10~19	14(8.4%)
	20~29	57(34.3%)
	30~39	22(13.2%)
	40~49	39(23.4%)
	50≤	33(19.8%)
Residence	Apartment	75(45.5%)
	Villa	56(33.9%)
	Korean style house	6(3.6%)
	House	25(15.2%)
	Other	3(1.8%)

### 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식도 및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성별, 연령,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인식도 및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후 사후검정(scheffe)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결 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총 165명으로 여자가 104명(63%), 남자가 61명(37%)으로 보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14명(8.4%), 20대 57명(34.3%), 30대 22명(13.2%), 40대 39명(23.4%), 50대 이상은 33명(19.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75명(45.5%), 빌

라 56명(33.9%), 한옥 6명(3.6%), 주택 25명(15.2%), 기타 3명(1.8%)으로 비교적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 졌다(Table 1).

### 2.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인식도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집안 구조 변경 74명(44.8%)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치료 방법 44명(26.7%), 인테리어 방법 22명(13.3%), 생각해본 적 없다 22명(13.3%), 기타 3명(1.8%)으로 나타났다(Table 2).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누가 담당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응답 결과 건축사 47명(28.5%), 인간공학기사 20명(12.1%), 인테리어 기사 9명(5.5%), 환경연구원 13명(7.9%), 사회복지사 19명(11.5%), 의사 21명(12.7%), 물리치료사 4명(2.4%), 작업치료사 15명(9.1%), 심리치료사 7명(4.2%), 기타 9(5.5%)으로 건축사가 담당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What do you think i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client?

n=165

	Categories	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wareness	House structure change	74(44.8%)
	Interior design	22(13.3%)
	Therapy method	44(26.7%)
	I have never considered	22(13.3%)
	Other	3(1.8%)

Table 3. What do you think about which expert should improve live environments for patient?

n=165

	Categories	n(%)
Which do you think should be professional?	Architect	47(28.5%)
	Engineer Ergonomics	20(12.1%)
	Interior designer	9(5.5%)
	Environmental research worker	13(7.9%)
	Social worker	19(11.5%)
	Doctor	21(12.7%)
	Physical therapist	4(2.4%)
	Occupational therapist	15(9.1%)
	Psychotherapist	7(4.2%)
	Other	9(5.5%)

Table 4. What do you think about how important live environments for patients

n=165

	subjects(n)	n(%)	importance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61	4.18±0.85	1.38	0.17	
	Female	104	3.95±1.12			
Age (years)	10~19 <sup>a</sup>	14	4.21±0.58	0.301	0.877	a=b=c=d=e
	20~29 <sup>b</sup>	57	4.05±0.91			
	30~39 <sup>c</sup>	22	3.90±0.75			
	40~49 <sup>d</sup>	39	4.10±1.07			
	50≤ <sup>e</sup>	33	3.93±1.42			

\*p&lt;.05, \*\*p&lt;.01

### 3.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질문한 결과 남자 4.18±0.85, 여자 3.95±1.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05$ ) (Table 4). 연령별로 중요성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10대에서 4.21±0.58으로 가장 높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4점(중요하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에 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 4.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묻

는 질문에 ‘편안할 것 같다’ 43명(27.4%), ‘독립성을 키워 줄 수 있다’ 12명(7.6%), ‘건강해진다’ 28명(17.8%),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 72명(45.9%), ‘기타’ 2명(1.3%)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왜 안 중요한지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불필요할 것 같다’ 1명(2.7%), ‘돈이 많이 들어간다’ 30명(81.1%), ‘귀찮다’ 0명(0%),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2명(5.4%), ‘기타’ 4명(10.8%)로 대부분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졌다(Table 6).

Table 5.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for the patient?

n=157

	Categories	n(%)
Important reason	Unbend the mind	43(27.4%)
	It can grow independence	12(7.6%)
	Grow strong in health	28(17.8%)
	It can enhance the quality of life	72(45.9%)
	Other	2(1.3%)

Table 6. what do you think about how important is about improving environments for patients?

n=37

	Categories	n(%)
Not Important reason	It seems unnecessary	1(2.7%)
	It seems expensive	30(81.1%)
	Troublesome	0(0.0%)
	It seems to be not Helpful	2(5.4%)
	Other	4(10.8%)

## 5. 현재 주거환경

대상자들이 얼마나 현재 거주 하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했다. 그 응답 결과로 '매우 불편하다' 1명(0.6%), '불편하다' 14명(8.2%), '보통이다' 61명(35.7%), '편하다' 65명(38%), '매우 편하다' 24명(14%)로 현재 주거 환경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7).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에서 어떤 장소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거실' 7명(5.6%), '화장실' 48명(38.1%), '주방' 24명(19%), '현관' 15명(11.9%), '마당' 2명(1.6%) '베란다' 20명(15.9%), '기타' 10명(7.9%)으로 화장실, 주방, 베란다에서 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Table 8).

## IV. 고 찰

본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의 인식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WHO에서 2001년 채택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에서도 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물리적, 문화적, 사회·심리적 환경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포함되는 요인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실질적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Welch, 1995).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요소는 지속 되서 강조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작업치료사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

Table 7. how convenient now your living house is?

n=165

	Categories	n(%)
Convenient degree	Very inconvenience	1(0.6%)
	Inconvenience	14(8.2%)
	Normal	61(35.7%)
	Relaxed	65(38%)
	Very relaxed	24(14%)

Table 8. Where the places that you feel uncomfortable?

n=126

	Categories	n(%)
Feel inconvenience places	Living room	7(5.6%)
	Bathroom	48(38.1%)
	Kitchen	24(19%)
	Front door	15(11.9%)
	Yard	2(1.6%)
	Veranda	20(15.9%)
	Other	10(7.9%)

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이다(KAOT, 2012). 작업치료사들은 각자가 속한 환경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이를 통하여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주는 분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환자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작업치료사들의 취업기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재활기관에 치중되고 있다(Han, Park, & Lee, 2013; Jeong, Lee, Paek, & Chang, 2004). 최근에 지역사회에 작업치료사 배치의 중요성이 보고되는 등 작업치료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되고 있다(Cho et al., 2006).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들이 진출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집안구조 변경이 74명(44.8%), 치료적인 방법 44(26.7%)로 나타나 일반인들은 대부분 단순히 집안구조의 변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치료적 방법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여 주거환경개선에 있어 작업치료사도 팀원으로 참여하면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환경개선을 담당할 것 같은지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건축사가 47명(28.5%), 인간공학기사 20명(12.1%)로 보여진 것에 반해 작업치료사 역시 15명(9.1%)로 주거환경개선을 담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주거환경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져 보고되고 있지만, 환자를 주거환경개선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거환경개선에 의료팀이 합류하면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남자 4.18±0.85, 여자 3.95±1.12로 보여져 남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93~4.21로 보여져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환자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내집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주거공간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로 보여진다(Bae, 2013). 본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본인의 주거환경이 편안하고 또한 효율적이었으면 좋다는 바램으로 보여져 주거환경개선은 꼭 필요한 분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을 살

펴보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응답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편안해 진다는 응답역시 27.4%로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독립성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응답은 7.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삶의 질을 중시 여기며 주거 환경에도 여가, 쇼핑 등이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로 보여 지며(Koo, & Cho, 2015), 일반인들은 장애인들과 다르게 독립성보다는 삶의 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현재 주거환경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불편하다는 응답이 9%정도로 일반인들은 크게 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집안에서 불편함을 느낀 장소를 살펴보면 화장실(38.1%), 베란다(15.9%), 현관(11.9%)로 보여 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불편함으로 느낀 이유는 화장실이 미끄럽거나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인들도 장애인들과 다르지 않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제한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수행문맥을 확인하여 최적의 삶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접적인 환경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작업치료사 배치로 인하여 최적의 기능을 이끌어 내어, 장애인과 일반인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수가 전 연령대에 분포하였지만 많은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서울·경기권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여 지역별 분포가 고루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존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분야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본 연구 결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작업치료사가 필수적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환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통한 독립

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환자의 독립적 생활에 관련한 치료적 접근법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조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 연령별 간에 주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여졌다.

셋째, 집안 환경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으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바닥이나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작업치료사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Reference

- AOTA. (2015). Occupational therapy and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Retrieved Jun 30, 2015, from <https://www.aota.org/-/media/Corporate/Files/AboutOT/Professionals/WhatIsOT/CY/Fact-Sheets/UDL%20fact%20sheet.pdf>.
- Bae, E. Y. (2013). *A Study on the Echo generation of Housing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area*(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Cho, M. S., Kim, Y. H., Yang, Y. A., Oh, H. W., Hong, J. R., Noh, J. S. et al., (2006). Basic survey for revitalize of employment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community health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4(1), 1-11.
- Han, D. S., Park, J. H., & Lee J. H. (2013). Demand Analysis on the human resources occupational therapis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5(1), 45-53
- Jeong, W. M., Lee, H. S., Paek, H. H., & Chang, M. Y. (2004). The literature review for future direction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2(1), 83-95.
- Kim, N. R. (2014).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of elder welfare housing dwellers based on ageism. *Journal of Geography*, 59, 27-49.
- Koo, H. G., & Cho, H. K. (2015). An empirical study on housing preferences by lifestyle type based on housing values under hypothetical future situation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6(2), 37-65.
- 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5). *Item Development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rson* 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2). Occupational therapy-Definition .
- Kwon, D. Y. (1995). *Rehabilitation and welfare : Systems and conditions*. Seoul: Hongikjae.
- Lee, C. H. (2012). Study methodology. Seoul: Gyechuk.
- Lee, S. U. (2010). Comparing levels of housing welfare between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and without disabled members: Focusing on minimum standard of housing and housing affordability. *Academy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2(2), 1-2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Disabled welfare development five-year pla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Disabled actual condition result report*.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Disability current situation of registration*.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Registered disabled present condition*.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Macmillan Press.
- Park, J. Y. (2006). *Study on improving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severely disabled housing needs*(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Paik, E. R. & Lee, E. M. (2012). A study on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needs on residential improvement of group home residents with disability. *Korea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 19*, 211-234.
- Welch, P. (1995). *Strategies for teaching universal design*. MA: Adaptive environments.
- Wilkoff, W. & Abed, L. W. (1994). *Practicing universal design: An interpretation of the ADA*. NY: Van Nostrand Reinhold.



## Abstract

### Basic Investigation for Publicity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y

Jang, Jong-Sik\*, M.P.H., O.T., Kim, Tae-Hwan\*, Kim, Ji-Hyun\*, Msc., O.T.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Far East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interest rat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basic data for further development of occupational therapy through the results.

**Methods :** This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April 1th and May 31st 2015 and 165 questionnaires were public. The questionnaires of 165 respondents were analyzed through Cosstabs,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study and t-test, ANOVA analysis using SPSS ver. 18.0

**Results :** Looking for recognition percentage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44.8% of people reply the changing the house structure and 26.8% of people reply the cure method. in contrast to 28.5% of people reply the architect, the only 9.1% of people reply occupation therapist. the most people agree tha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is important. but there is no difference about answer between sex and age. 5.9% of people reply that improving live environments may be good for improving life quality but 7.6% of people reply independency may increase, it is not important because it must need lot of money for improving live environments

**Conclusion :** The awarenes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in short supply, but Things that are significant in the distance, the need for further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was broad consensu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conomic assistance and occupational therapists and incursion of correlated to require institutional support.

Key Words : Awareness, Importance, Occupational Therapy, Residential Environment